미얀마 강진에 불교계도 인도적 지원 나서

종지협 "희생자 애도"…불교 단체 긴급 모연

여수령 기자 spero0821@naver.com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1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긴급 모금에 나섰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 스님),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와 신속한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며 "소중한 후원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지부를 두고 있는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는 현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는 "가장 더운 혹서기에 강진까지 겹쳐 주민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며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주한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 스님)은 3월 31일 주한미얀마대사관에 구호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목탁 스님은 "미얀마 불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연대의 뜻을 표하고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탠다"고 밝혔다. 우딴신 주한미얀마대사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찰이 무너졌고 승급 시험을 보던 어린 스님들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불교계가 보내주는 관심과 사랑에 큰 힘을 얻고 있다. 후원금과 물품은 현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찰을 비롯한 건물이 무너지고 2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주한미얀마대사관



인구 170만명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주택 1만 3400채 이상이 붕괴돼 최소 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로터스월드

후원

-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농협 301-0366-4563-11
-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기업 062-070908-01-011
- **로터스월드** 02-725-4277 농협 301-0058-7941-81
- **더프라미스** 02-735-3119 신한은행 100-027-597795

3월 28일(현지시각)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진원지인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주택, 병원,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 사찰과 탑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인구 170만명의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자 3500여 개의 불탑이 세워진 불교 문화의 중심지다. 미 지질조사국(USGS)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불교사원은 670개, 탑은 290개가 무너졌다. 주택은 1만 3400채 이상, 도로는 30개, 교량은 7개 이상 손상된 상태다.

또 지진 발생 이후에도 지속되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도로 접근과 물품 공급이 차단돼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들은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을 촉구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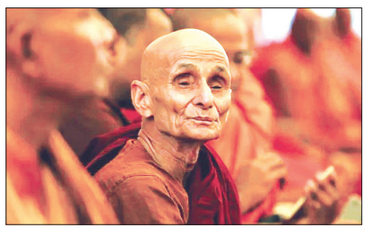
印, 발람푸르 불교 순례지 개발 박차

기원정사·슈라바스티 지구 낙후 지역 부흥 기대도 up

기원정사와 슈라바스티(사위성) 유적이 있는 발람푸르 지구를 두고 인도 웃타르 프라데시 주정부가 국제적인 불교 순례지로의 개발에 나서 화제다. 주정부는 3월 30~31일 양일간 국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계획 진행에 나섰다. 지난 3월 23일 인도의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해당 소식을 집중보도했다.

북인도 웃타르 프라데시주의 발람푸르 지구는 기원정사와 사위성 유적이 있어 전세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주에서 낙후된 지역인데다 명성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로 순례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이곳을 중요한 불교 순례지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 국제 문화 및 관광개발을 위한 조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하는 '바라트 붓다 복지재단'은 3월 30~31일 양일에 걸쳐 '국제 불교문화 관광공원'으로 개발될 부지에서 팔리어 삼장을 독송하고 불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에서 참석했으며 팔리어 삼장 독송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발람푸르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스님들. 사진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부처님 생애를 묘사한 불상과 함께 스리랑카에 불교와 보리수 묘목을 전한 비구니 상가미타 스님의 상도 공개됐다. 재단 측은 "상가미타 스님의 상은 불교를 통한 평화의 국제교류를 상징하며, 무엇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비구니 승가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주정부 측은 "발람푸르 지구는 불교에서 중요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라며 "프로젝트를 통해 순례지를 찾는 전세계의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진흥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트 붓다 복지재단의 비서 디바크르 파텔은 "국제 불교문화 관광공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 홍보,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불교 순례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단과 주정부 측은 이곳을 진정한 순례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 전국과 해외의 주요 순례지에서 가져온 신성한 상징물을 봉안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까지 룸비니(네팔),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슈라바스티, 그리고 스리랑카 등지의 성지에서 흙과 보리수 묘목을 가져와 심었다고해서 '성스러운 흙'과 보리수 어린 나무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국제 불교도 연맹, 미얀마와 불교교류 강화

팔리어 고전 인도어로 인정 후속 "외교·학술·문화협력 이어갈 것"

인도와 미얀마 사이의 불교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국제 불교도 연맹(IBC)의 고위 대표단이 미얀마를 4일간 방문했다. IBC 사무총장 쟝춥 최댄 린포체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얀마 불교계, 정부 기관, 학계 등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월 25일, 인도의 '인디안 내러티브'는 양국 간의 불교 교류의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I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문은 인도가 2024년 10월, 불교 고전어인 팔리어를 산스크리트어와 함께 공식적으로 고전 인도어로 인정한 데 이어 이루어졌다"면서 "인도 정부의 결정을 통해 이 언어에 대한 학문적, 정신적 관심이 인도에서 되살아났으며, 팔리어 전통이 강하게 남은 미얀마와의 교류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국제 테라와다 불교 포교대학(ITBMU)을 포함한 미얀마 내의 주요 불교대학을 방문해 잠재적인 교육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얀마 주요 미디어 기업인 스카이넷 붓다채널과 미얀마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미얀마 내러티브와의 토론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엔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인 우 틴 우 르윈이 동석했다.



미얀마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도 국제불교도연맹. 사진출처=국제불교도연맹(IBC)

그 결과 양국 간 불교담론과 지식 공유와 교류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양측은 팔리어 연구와 불교문화 교류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표단 방문의 주요한 성과는 IBC와 미얀마의 저명한 불교학술기관인 시타구 국제 불교 아카데미(SIBA), 샨 주립 불교 대학(SSBU)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인도와 미얀마 양국은 두 나라 모두에서 불교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팔리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미얀마 국가 승가위원회 의장인 칸디마 비왐사 스님을 친견했으며 담마 죠띠 위빠싸나 센터를 방문해 위빠싸나 수행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가지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표단의 방문은 미얀마 주재 인도 대사인 아바이 타쿠르가 주최한 리셉션으로 마무리 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방문과 행사들은 인도와 미얀마 간의 역사 속에 불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문화적, 학문적 교류가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IBC측은 "외교적, 학문적 지원은 두 나라의 공유된 불교 유산을 강화하고, 교육, 미디어, 출가자의 사회 참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깍기…),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